

올해도 잘 뽑았네... '이정철 매직'은 계속된다

백목화, 2년 공백 무색 연습경기 펼칠 외인 어나이드 팀 최적화...적응 완료 탄탄한 전력 구성...올 시즌도 정상권

지난 5일 오후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IBK기업은행의 김수지, 이나연이 팀에 복귀했을 때였다. 대부분의 팀들은 대표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거나 집에 보냈지만 이정철 감독은 아니었다. 추석연휴 때도 하루만 쉬고 훈련을 했던 팀이다. 이 감독은 "너희들을 위해 팀이 훈련 사이클을 맞출 수 없다. 대신 너희들이 맞춰라"고 했다. 이들은 다음날 군말 없이 오전훈련에 참가했다.

로마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 이정철 창단감독은 8년째 팀을 이끌며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왔다. 창단 2년째인 2012~2013시즌 통합우승을 시작으로 쉼 없이 챔피언결정전에 참가했다. 2년 주기로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한 IBK기업은행의 성과는 남들보다 더 많이 흘린 땀의 열매였다.

유니폼에 새긴 3개의 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IBK기업은행만의 팀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몇 년째 신인드래프트에서 후순위로 외국인선수도 끝번이었다. 이제는 한계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독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도 IBK기업은행은 여전히 정상권으로 분류된다. 마법 같은 그 노하우가 정말 궁금하다.

●땀의 가치를 믿는 팀 문화 속에서 계속 변화를 꿈꾼다

지난 시즌의 IBK기업은행은 시즌 막판 교통사고와 챔피언결정전 1차전 5세트 14-10에서의 역전패로 요약된다. 그래서 더욱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은 치열했다. 창단멤버 가운데 IBK기업은행에 남은 선수는 김희진과 6년 만에 돌아온 이나연뿐이다. 많은 선수들이 떠났고 새 얼굴들이 틈을 채웠다.

변화를 위해 주전세터도 이고은에서 이나연으로 교체했다. FA와 은퇴로 주력선수들이 떠나면서 팀은 항상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팀 문화였다. 로마가 오랜 시간 세계를 통치해온 비결도 사람들의 정신 속에 파고든 문화였다. 승리를 위해 동료들에게 관대하지 않고 서로를 자극하면서 격려하는 선수들은 외박에서 돌아오자마자 몸무게부터 잴다. 체중이 늘면 다음날 더 많은 훈련을 감수한다. 감독은 "선수를 다스리는 것은 동료들이 만드는 팀 문화다. 감독이 아니다"고 했다. 현장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프런트의 존재도 IBK기업은행이 다른 팀과 차별되는 팀 문화다.



IBK기업은행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매 년 우승후보로 꼽히는 전동의 강팀이다. FA 이적과 트레이드로 인한 많은 변화에도 좀처럼 흔들림이 없다. 이정철(가운데) 감독은 "선수를 다스리는 것은 감독이 아닌 팀 문화"라며 숨겨진 비결을 밝혔다. 사진제공 | KOVO



남자프로농구 KCC 브랜든 브라운(오른쪽)이 21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SK와 경기에서 리운 윌리엄스와 몸싸움을 하고 골밑슛을 던지고 있다. 사진제공 | KBL

'몰빵농구' 탈피한 KCC 팀 플레이가 살아났다

SK전 고른 활약으로 82-70 승리

5GX 프로농구

전주 KCC는 득점 분포가 다양한 팀 가운데 하나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KCC는 안드레 에밋과 함께했던 지난 세 시즌 동안은 '히어로 불(한 선수가 공격을 독점하는 농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외국인선수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공격을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졌다. 새롭게 KCC 유니폼을 입은 가드 마퀴스 티그는 자기 공격보다는 패스를 통해 동료들의 찬스를 보는 선수다. 자연스럽게 국내선수들의 득점 기회가 증가했다. KCC는 21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서울 S K와의 홈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82-70으로 승리를 거뒀다.

과거 KCC는 에밋이 상대에게 봉쇄당하면 여지없이 패했다. 이제는 달라졌다. 외국인선수들이 고전하더라도 국내선수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날 경기 그렸다. 3쿼터까지 센터 브랜든 브라운(13점·9리바운드)이 7점에 그쳤지만 티그(12점·6어시스트), 이정현(13점), 송창용(10점), 하승진(11점·8리바운드), 송교창(6점·6리바운드) 등의 고른 활약으로 경기를 리드했다.

외국인선수 1명만 출전하는 4쿼터에는 이정현이 자신에게 수비를 모아 놓고 어시스트를 통해 브라운의 득점을 이끌어내면서 기를 살렸다. 79-66으로 앞선 경기 종료 1분 30초전에는 센터 하승진이 공격리바운드에 이은 골밑 득점과 함께 상대 파울로 얻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는 3점 플레이를 완성하며 승기를 굳혔다.

KCC는 20점 이상을 넣은 선수가 한 명도 없었지만, 5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 득점을 고르게 쌓았다. KCC 추승균 감독은 "경기를 치를수록 국내, 외국인선수간의 조화가 잘 이뤄질 것이다. 팀 전력이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선두 울산 현대모비스는 원주 DB와의 원정경기에서 89-87로 진땀 승을 거뒀다. 현대모비스의 센터 라건아는 33점·1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의 개막 4연승을 이끌었다. DB는 저스틴 팀먼이 41점·16리바운드로 맹활약 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부산에서는 홈팀 부산 KT가 서울 삼성을 105-98로 꺾었다. 삼성은 3연패를 당했다. **글** 신 | 정지욱 기자

IBK기업은행 2018~2019시즌 예상 스타팅 오더



● **IN** 한지현(FA이적), 박상미(이상), 김해빈(이상)
 원포인트: 변지수(이상), 김현지(이상), 최수빈(이상), 박세윤(이상), 문지윤(OPP), 이윤주(S)

● **IN&OUT** 한지현(FA이적), 백목화(이상), 이나연(이상), 트레이드, 문지윤(김해빈), 이윤주(이상, 신인)

● **OUT** 김미연(FA이적), 노란 이고은(이상 트레이드), 김해진(자유계약선수), 유미라(임의탈퇴)

●틈새시장 공략과 새 외국인선수 어나이드를 선택한 뒷얘기

이정철 감독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탄탄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비결은 틈새시장 공략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V리그를 떠났던 선수들을 콕백시켜 다시 꽃을 피게 만들었다. 이효희가 대표적이고 김유리 김사니도 그랬다. 이번 시즌은 백목화다.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꿈꾸다 2년 만에 코트로 복귀한 백목화의 가세로 IBK기업은행은 받는 것이 더 탄탄해졌다. 18일 흥국생명과의 연습경기 때 백목화, 고예림, 새 외국인선수 어드라 어나이드, 리베로 한지현이 탄탄하게 리시브를 해준 덕분에 김미연의 FA 이적 공백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어느 감독도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백목화 영입을 평가했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선택의 순간에 헤일리 스펀만과 사만다 미들본이 남아 있었지만 감독의 선택은 어나이드였다. 프로배구 경험도 없는 22세의 어린선수를 역대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1순위 2명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최종선택 30분을 남기고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감독이 코칭스태프에게 했던 말은 "장점은 있다. 고치면 된다"였다.

그동안 이정철 감독은 날카로운 눈으로 팀에 최적화된 외국인선수를 영입해왔다. 알레시아~카리나~데스티니~맥마흔~메디 등 데려오는 선수마다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드는 눈치다. "그동안 왔던 선수 가운데 가장 힘들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다. 대학배구선수 생활만 해온 그에게 새로운 배구문화와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상상도 못할 훈련을 시키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몇 차례 충돌이 있었고 새 외국인선수로 교체도 검토했다.

"왜 이런 훈련을 해야하나"며 반발했던 어나이드는 주변의 설득과 훈련을 통해 달라진 자신의 배구기량을 보여 주며 감독의 통찰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직 실전무

대는 남아 있지만 연습경기에서 팀에 최적화된 선수로 변해갔다. 연습경기를 지켜봤던 심판들은 "리시브도 잘하고 타점과 파워 모두 좋다. 올해도 잘 뽑았다"고 했다. 물론 감독의 눈에는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키 플레이어는 김희진

팔꿈치와 어깨부상을 이유로 국가대표팀에서 중도하차했던 김희진은 재활을 잘 마쳤다. 정상에 근접한 몸 상태다. 필라테스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큰 근육보다는 잔 근육을 보강해왔다. 이전까지의 김희진은 파워와 타점으로 상징되는 큰 공격을 잘해왔지만 이제는 세련된 기술을 추가하고 리더역할까지 요구받는다. 여전히 MB와 OPP 역할 겸업이다. 감독이 꼽는 이번 시즌 키플레이어다. 이나연의 영입은 다목적이다. 한 살 어리지만 김희진과 창단 동기다. 김희진의 사기를 올려주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김수지와 김희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나연과 고예림은 이번 시즌을 마치면 FA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즌을 맞이할지 짐작이 된다.

강한 이미지의 이정철 감독은 요즘 갈수록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한다. 미디어데이 때는 "내가 변했다"면서 FA 예정 선수들에게 어필도 했다. 최근에는 코치와 베테랑선수 3명의 의견을 듣고 신인 문지윤을 선택했다. 이미지가 달리 주변사람의 말을 듣는 귀도 항상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종진** 전문기자 marco@donga.com

할로웨이 부상... '개막 3연승' 전자랜드 어찌나

1~2주 휴식 필요...팀 상승세 찬물 유도훈 감독 "잘 회복하면 다시 탄력"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개막 3연승을 달리던 인천 전자랜드의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전자랜드는 지난 20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홈팀 창원 LG에 70-94로 대패했다. 장신 외국인선수 머피 할로웨이(28·196cm)의 결장이 뼈아팠다. 할로웨이는 18일 전주 KCC와의 홈경기 도중 블록슛을 시도하다 착지하면서 발등 부상을 입었다.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게 불행 중

다행이다. 그는 1~2주 가량 휴식이 필요하다.

전자랜드 유도훈(51) 감독은 할로웨이의 부상에 깜짝 놀랐다. 시즌 초반 외국인선수 부상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다. 전자랜드는 2015~2016시즌 공동 2위 선발한 외국인선수 안드레 스미스(33)가 맹활약해 개막 4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스미스는 무릎부상으로 10경기만 뛰고 한국을 떠났다. 해당 시즌 전자랜드는 외국인선수로 골머리를 앓았다.

마음 같아서는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유 감독은 멀리 내다보기로 했다. 그는 "1~2주 정도면 2~3경기 정도 결장해야 한다.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장기에이스가 아닌가. 무리해서 1~2경기 뛰었다가 아예 시즌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로웨이가 매 경기 20점·10리바운드를 해줄 수 있다는 걸 개막 후 3경기에서 확인했다. 잘 회복하면 팀이 다시 탄력을 받을 기회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자랜드는 24일 안양 KGC와 홈경기를 갖는다. 할로웨이는 이 경기도 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감독은 "일정에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할로웨이의 회복을 위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할로웨이가 없는 기간에 국내 선수들이 한발 더 뛰어줘야 한다"며 국내선수들의 분발을 기대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전자랜드는 20일 LG전 패배로 개막 3연승 행진이 끊겼다. 맹활약을 펼쳤던 외국인선수 머피 할로웨이(왼쪽)의 부상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사진은 18일 KCC전에서 코칭스태프의 작전지시를 받고 있는 할로웨이. 사진제공 | KBL